

# 5부 남겨진 사람들의 어머니

인터뷰 6회차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15:00



왼쪽부터 박래균, 이수호, 배은심, 장남수

## 1. 유가협 창립

**이수호**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배은심 어머니께서는 멀리 광주에서 아침에 올라오셨는데요. 오늘은 제3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 인터뷰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소선 어머니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분들을 모시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머니께서 삶의 후반부를 함께하셨던 전국민주민족유가족협의회, 유가협입니다. 유가협에서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셨던 배은심 어머니, 장남수 아버지, 박래군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먼 길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진행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함께하셨을 때 역할과 직책,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심 어머니부터 해 주세요.

**배은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장남수** 저는 1996년도에 유가협에 왔습니다.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항상 한울삶에 계시던 기억. 그때 처음에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러다가 건강을 찾으셨지요.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를 할게요. 어머니가 담배를 자주 피우시니까요. 아침이면 담배가 떨어져요. 제가 담배를 피우거든요. 제 아들 이름이 현구 인데요. 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현구야, 담배 내놔’라고 하시더라



창신동 한울삶에서 이소선(맨 앞 왼쪽에서 두 번째)



농성하는 이소선과 전국민주민족유가족협의회  
(왼쪽에서부터 배은심, 강선순, 이소선, 박정기)

고요. 그럼 제가 담배 한 개비를 두고 담배를 사러 가곤 했어요. 아마 밤새 잠이 안 와서 담배를 피우셨을 거예요. 피우다 보면 새벽에 담배가 떨어졌나 봐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참 여전사셨습니다.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사셨어요.

**박래군** 저는 1988년에 동생이 먼저 세상을 뜨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유가협에 와서 사무국장을 5년 동안 했어요. 유가협 활동하면서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죠. 어머니가 제 핑계를 많이 대시기도 했는데요. (웃음) 지금은 인권운동을 하느라 바쁩니다. 걸치고 있는 일이 많아서요.

**이수호**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추억들, 지금 장남수 회장님께서 살짝 이야기하셨는데요. 담배 피우시던 일화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특히 숨겨진 이야기나 잘 안 알려진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유가협 창립 및 운영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가협이 어떤 단체이고,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운동 및 민주화운동 등 과정에서 자신을 헌신한 열사들의 유가족분들이 그분들의 유지를 잇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소선 어머니도 그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협은 다른 관련 단체들과 달리 시작부터 많은 슬픔을 내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유가협의 초기 설립 과정과 이소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유가협에 들어오게 된 과정, 유가협 창립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때 기억나는 여러 가지 일들, 초기 회원이나 후원회 인

사, 조금 전에 수장고에서 잠시 봤습니다만 처음에 한울삶을 짓기 위해서 서화전 같은 전시회들. 또 초대 회장이 이소선 어머니였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는지 등 유가협 창립 시기를 중심으로 유가협과 이소선 어머니 그리고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부터?

**박래군** 예. 한열이 어머니부터. 유가협에 제일 먼저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아버지.

**배은심** 저는 87년 8월 12일에 유가협을 찾았어요.

**박래군** 그때가 유가협 총회를 할 때죠? 2회 총회.

**배은심** 1주년 총회 때예요. 87년에 처음으로 총회에 나갔는데요. 합정동에 있는 마리스타수도원이었고. 거기에 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열이를 망월동에 보낸 뒤 얼마 안 되었어요. 7월 9일에 망월동에 보냈고 그때가 8월 12일이니까요. 한 달 조금 넘었을 때예요. 거기에 가니까 많은 분이 계셨어요. 오신 분들이 인사를 하시고 제 차례가 돌아왔어요. 저도 인사를 드렸죠. ‘이한열 엄마다’라고 인사를 드렸죠. 인사를 드리니까 누군가가 그러세요. ‘이한열 엄마인데 저희 회원이 되어야죠’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하셨는지, 종태 어머니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부터 바로, 그때는 시위 현장도 데모 장소도 하도 많으니까요. 그때부터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죠.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제가 서울에 안 사니까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시작한 거죠. 그때는 유가협이 사무실이 없었어요. 지금 서초동 검

찰청 있는 쪽에 이소선 어머니가 조그만 방을 사 놓아서 주로 그쪽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커피 주시면 커피 얻어먹고. 그 당시에는 어머니들 눈치 보며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유가협 활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광주가 집이에요.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어머니들 댁에 가서 먹고, 자고, 이튿날 또 따라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유가협이 사무실을 얻어야 했어요. 저는 어깨너머로 구경만 할 때였는데요. 어머니가 커피를 드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집을 하나 마련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셋방을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영정사진들을 가지고 다니니까 경찰들이 방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경찰들이 이 사람들 방 주면 안 된다고 훼방을 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도 얻고, 글도 얻고, 현물도 얻고, 종철이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들이 많이 활동하셨어요. 전주, 광주, 강원도, 부산 할 것 없이 곳곳에 유명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시 물품을 모으고, 갤러리를 하나 얻고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가 제안을 안 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셋방을 얻으러 다니고 있거나 또 매달 월세 내면서 생활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는 상황이 눈앞에 보여요. 그때 어머니의 현명하신 판단이 오늘의 창신동 유가협을 만들지 않았나 해요. 먼저 간 우리 혈육들의 보금자리가 되지 않았나 해요.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수호**      배은심 어머니하고 이소선 어머니하고 연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배은심**      10년 차이 나요. 생일도 재미있어요. 우리 종철이 아버지는 10월, 어머니는 11월, 저는 12월이에요. 어머니가 11월 10일경인가 그래요.



이소선 가두시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수호** 11월 13일이요.

**배은심** 저는 12월 9일이에요. 그래서 나이 차이도 딱 10년이에요. 어머니가 많이 살았습니다. (웃음) 어머니 밥도 많이 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요. 참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호** 꼭 이번에 말씀해야겠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두런두런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다가 보충할 내용이 있다거나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래군** 어머니 말씀에 제가 보충을 하ற요. 제가 동생을 잃고 1988년 8월 12일인가에 갔어요. 한열이 어머니는 87년도에 가셨죠? 유가협에 갔더니 총회를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했어요. 거기에 사무실 비슷하게 두고 했어요. 처음 유가협에 갔는데 도떼기시장이에요.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웃음) 그래서 회의도 안 되고.

**배은심** 그때는 래군이 간사였어요.

**박래군**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했어요.

**배은심** 그러니까 6월 6일에 래전이가 세상을 떴고, 그해 8월 12일에 거기에 오셨으니까. 우리 래군 씨는 속성으로.

**박래군** 6월 4일에 동생이 분신하고 6월 6일에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6월 12일인가 치렀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소선 어머니가 ‘한번 와

봐라’ 해서 간 게 8월이었어요. 어머니가 계속하던 이야기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라서 잘 모르니 네가 와서 일 좀 해 줘라’라고 했던 거죠. 10월에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농성을 할 때부터 그렇게 발목을 잡힌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소선 어머니가 주장했던 집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것 요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 사진을 걸어야 하는 데요. 경찰이 나쁜 놈들인 거죠. 쫓아다니면서 못 하게 한 거예요. 유가협 사무실 못 만들게요. 민가협도 처음에 그랬어요. 민가협도 처음에 사무실 만들 때 경찰력이 동원되어 길바닥에서 창립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들 영정 사진을 마음 편히 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가족들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이 오면 묵을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친척 집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친척 집 가도 불편하잖아요. 자식을 잃고 난 후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어머니 아버지들이 묵을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다른 거 할 때는 끼워 줬는데 집 이야기할 때는 제외되었어요. (웃음) 이소선 어머니랑 박정기 아버지(박종철 父)랑 재호 아버지가 열심히 얘기하셨어요. 의논해서 서로 역할 분담하고, 이소선 어머니도 그때 박채영이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도 걸어 오시고 그랬어요. 종철이 아버지도 많이 하고, 재호 아버지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열이 건으로 뭐가 있었잖아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원래 대관을 무료로 해 주기로 했었는데요. 거기가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종철이도 그렇고, 한열이도 그렇고. 조선일보가 왜곡한 게 있어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안국역인가요? 장소가 아랍미술관으로 갑자기 변경되고 거기에

서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해서 그때 돈으로 8천만 원인가 모았어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걸로 집을 샀는데요. 조그마한 한옥이었어요. 전체 평수가 26평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 갖추기에는 돈이 안 되니까 절반은 내버려 두고 절반만 썼어요. 방을 하나만 쓰고, 문간방에 사무실이라고 해서 작은 책상을 놓고 썼어요. 그게 한울살으로 이어진 거예요.

**배은심** 그 당시 집을 떠올리면 우습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방에서 아버지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살았을까?

**박래군** 그러니까요. 혼숙했어요. (웃음)

**장남수** 그 방은 전세를 끼고 산 거예요. 그것보다는 창립 과정에 어머니가 회장이 되는 과정을 저는 못 봤지만 많은 아버지들한테 들었어요. 마리스타수도원. 거기에 성원이 11명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회장으로 선출하려고 보니까 11명 중에 딱 두 분이 후보였어요. 이소선 어머니하고 세진이 아버지예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두 분 중에서 당연히 서울대 나온 아이를 둔 분이 될 거라고 그쪽에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이소선 어머니가 회장이 되었어요. 본인도 투표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수로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소선 어머니가 초대 회장이 되니까 반발이 있었어요. ‘어디 명문대 서울대학교 학생 부모가 아닌 노동자 어머니가 회장을 할 수 있냐?’ 하면서 흑돌 백돌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웃음) 그 이후로 세진이 아버지가 유가협에 협조 안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창립 과정은 그렇게 11명으로 시작되었어요. 1985년에 민가협이 창립했잖아요?

**박래군** 그런데 창립총회 사진을 보면 이소선 어머니가 없어요.

**장남수** 그건 이야기를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유가협이 1986년이니까. 사망자 부모들이 민가협이랑 같이했는데요. 그 안에서 10명이 넘으니까 유가협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만든 날이 8월 12일이예요. 1986년 8월 12일인데요. 그때 초대 선거가 앞서 말한 내용이에요.

**배은심** 종철이 아버지 글을 보면 왜 이소선 어머니가 회장이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처음에 동점이었대요. 87년도에는 저희도 회원이 아니었으니까 성원이 아니었는데, 종철이 아버지는 거기 계셨던 거예요.

**이수호** 종철이 아버지는 회원이 먼저 되었다는 거죠?

**배은심** 종철이 아버지는 회원이었죠.

**박래군** 한열이 어머니보다 먼저 되었다는 거죠?

**배은심** 그렇지. 나는 그 뒤니까요. 종철이 아버지 글을 보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투표했는데 동점이 나왔대요. 종철이 아버지는 관망했는지 투표를 안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점이 나와서 아버지가 생각했대요. ‘내가 한 표를 주면 이소선 어머니가 회장이 되겠다.’ 그리고 설명을 했대요. ‘종철이가 전태일 평전을 읽은 것을 내가 읽어 봤소. 그것을 읽다 보니 이소선 어머니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소선 씨를 회장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표를 던져 이소선 어머니를 회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종철이 아버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소선 어머니가 회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한 거지. (웃음)

**장남수** 그것은 「길을 찾아서」라고 한겨레에 연재를 하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미화된 거예요. 제가 종철이 아버지께 직접 들었어요. 책에는 그렇게 썼지만 투표하는데 ‘서울대에 나온 사람을 뽑을까 노동자 어머니를 뽑을까 하다가, 내가 어머니 편을 들어서 이쪽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수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소선 어머니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불리한 조건이었네요. (웃음) 그래도 당신은 ‘회장을 꼭 해야겠다’ 혹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는 안 하신 거잖아요? 혹시 회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뒤에라도 아셨는지. 그때 그 자리에는 다들 안 계셨지만요.

**배은심** 어머니가 회장을 맡고 88년에 불명확한 죽음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할 때 그걸 ‘의문사’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거기에 임분이 어머니(정연관 母)를 회장 시키고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시작하면서 ‘의문사’라고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의문사 유가족분들 모이시오’한 거죠.

**박래군** 김동환 목사요.

**배은심** 그래서 제가 한동안 힘이 들었을 때 ‘김동환 목사님은 왜 의문사라고 이름 붙였을까? 이름을 안 붙였으면 다 우리 식구였을 텐데’, 유가협 내부에서 이원화가 되니까 영관 복잡한 거예요. 항상 한울살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시끄러운 상황을 어머니가 두루두루 살피서 소화를 시키셨고요. 어머니가 회장을 하신 것은 유가협 진로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그 방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래군**

종종 이소선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전태일재단도 그렇고. 한울살도 이소선 어머니 자취가 배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 누구도 집을 만들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가 거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소선 정신을 정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수호** 저는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 하고, 교사로서 밖에서 전교조 활동할 땐데요. 보면 이소선 어머니, 박종철 아버지, 우리 이한열 어머니 이렇게 세 분이 늘 중심적 역할을 하시고 집회 때 대표로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이야기 듣기로는 세 어른이 늘 같이 친하게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세 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배은심** 특별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자주 만나서 정숙히 하면 신뢰가 쌓이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한울삶에 오면 먹고 자고 싸우러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종철이 아버지는 마포인가에 집이 있는 데도 아침에 엄청 일찍 오세요. (웃음) 어머니는 위에 전태일기념 사업회가 있었지만 안 가세요. 밤이나 낮이나 한울삶에서 생활하며 20년 넘게 사셨어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가까워진 거죠. 저는 항시 병아리였어요. (웃음) 세 사람 중에 병아리라서 그분들이 이끄는 대로 매일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강단 있는 기백을 봤죠. 어머니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점을 배워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이수호** 지금까지 구술하면서 보니까 가깝게 지냈던 분들 이야기 중에 담배 이야기도 있지만, 고스톱도 재미있게 잘 치셨다고 해요. 잘 안 진다던데요.

**배은심** 어머니 몇 단이나 될까요? (웃음)

**이수호** 같이 안 졌어요? (웃음)

**배은심** 밤낮으로 같이 졌죠. (웃음)

**장남수** 고스톱 치는 멤버가 이소선 어머니, 박정기 아버지, 최봉규 아버지(최우혁 父). 이소선 어머니는 빠꾸미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박정기 아버지가 제일 못 치세요. 보통 4명이 치시는데 어머니는 지지 않아요.

**박래군** 어머니는 어찌다 지죠.

**배은심** 그런데 고스톱 친다고 하도 회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려면 하세요. 재미있으니까. 전 칠게요’ 이랬죠. (웃음)

**박래군** 처음에 방 한 칸 썼는데 나중에 돈을 더 모아서 집 전체를 다 쓰게 되었어요.

**배은심** 그런데 강영철 아버지가 저희 살림 장부를.

**박래군** 강영철은 강민호 아버지세요.

**배은심** 강영철 아버지가 총무를 보시는데요. 장부를 보니까 15,000원을 회원금으로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이거 무슨 돈이에요?’ 하니까 ‘화투 쳐서 딴 돈이에요’ 하더라고요.

**박래군** 고리 뜯은 거예요. (웃음)

**배은심** 그걸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웃음)

**이수호** 유가협 수입으로? (웃음) 고스톱으로 수익사업을 하신



거네요. (웃음)

**장남수** 반찬도 사 먹고 하긴 했어요.

**배은심** 그 돈으로 소고기도 사서 국도 끓여 먹고.

**박래군** 어머니가 고스톱을 칠 때면 누가 따든 돈을 다 뜯어내요.  
그래서 그걸로 술을 사든 반찬을 사든. (웃음)

**배은심** 어머니는 돈을 따면 양말 속에 감춰요. (웃음)

**장남수** 어머니는 돈 잘 안 잃었어요. (웃음)

**배은심** 그때가 그렇게 재밌어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  
요. 뭐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살림을 말아먹었  
을까요? 빚을 졌을까요?

**장남수** 24시간을 같이 있다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고스톱이라도  
치면서 시간 보내고, 술도 한잔씩 마시면서 지내야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요. 비난할 것은 아니에요. 100원짜리였어요. 지금 1,000원도 도박으로 안  
치잖아요.

**박래군** 한울삶을 만들고 나서 유가협이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왜  
냐하면 거점이 생겼으니까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 가족들 만나서  
편하게 이야기하며 웃다가 울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사람  
들, 학생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주로 어머니들이 음식을 하고 같이 나눠서



**배은심**

어머니가 회장을 하신 것은 유가협 진로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그 방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별거 없었어도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왔을 때가 초반에 있었어요. 유가협이 집을 만들고 활성화되었던 때예요.

**배은심** 그런 것들이 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투쟁하다가 새카매져서 배가 고파서 와요. 누군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갈등이 되는데 이소선 어머니는 지위 막론하고 그 사람들을 다 안아 준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시니까 소위 우리들은 감히 싫어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측면도 있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죽은 사람도 노동자도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 주로 학생들이고. 투쟁도 주로 학생들이 하는데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라고 해요. 한울살은 밥술에 밥이 안 떨어져야 해요. 누구든 오면 밥을 줘야 하니까요. 혹시 반찬이 있을 때 반찬을 비벼서 양푼에 주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어요. 그렇게 먹고 가면 뿌듯해져서 다 좋아했어요. 제일 어른인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보면서 배우지 않았나 해요. 어디 가서 투쟁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제일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장남수** 유가협을 보면 86년부터 90년 말까지는 누구든 포용을 했어요.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자 투쟁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서 그분들 부모들을 껴안고, 유가협 회원으로 만드는 포용력이 있었기에 유가협 회원 수를 지금의 숫자까지 늘린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용했어요. 여의도 농성이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모두를 포용했기에 유가협 회원이 지금 숫자가 되었다고 봐요. 어머니는 그릇이 컸어요.

**이수호** 늘 그렇게 정답게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했는데요. 그런데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도 계시고. 특히 아까 의문사 당하신 분들의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때 내부적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소선 어머니는 밤에 집에도 안 가시고 유가협을 지킨다고 한울살에 계시기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박래군** 저도 있으면서 많은 유가족을 보잖아요. 이런저런 분들 계시고. 그런데 유가족들이랑 일하기 정말 힘들어요. (웃음) 저도 유가족이지만. 유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어렵게 해도 저한테만큼은 그래도 마음 놓고 막힘없이, 허물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래전이 형이고 유가족이니까. 그 뒤에 다른 유가족들도 만나고 보니까 어떤 유가족이든 잘 화합해서 가기보다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라지고 또 갈라져요. 말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곳들, 작은 곳도 큰 곳도 그래요.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뭘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유가족들은 자기 아픔이 제일 커요. 세상에서 제일 큼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픔을 알아주면 같이 갈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화 등 돌릴 수 있는 분들이 유가족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가족들 간에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생전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무얼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도 유가협은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데요. 일부 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끼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못되게 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가협도 그런 과정에서 곤욕을 치렀죠. 어머니도 못 볼 꼴 다 보시고. 매우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배은심**      제가 어떨 때는 유가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유가협 자체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 마음으로 안아 준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도 유가협은 한국 현대사에서 암묵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었다고 봐요. 그걸 부인하면 나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힘이 나요. 용산 참사처럼 큰일을 당한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곳에 가면 힘이 나요. 상부상조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해요. 누가 들으면 ‘뭐 했다고 그래?’라고 하겠지만.

**박래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서 누가 죽었다거나 분신했다거나 뭐 했다 하면 제일 먼저 유가협으로 연락이 와요. 제가 사무국장 하던 때 연락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현장에 가는 거예요. 유가협 회원들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유가족들 곁을 지켜 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시신도 탈취해 가지. 가족이나 친척들을 동원하고 회유해서 가족장을 치르고, 시신을 빼돌리려고 하죠. 누가 분신했다 죽은 것은 그 죽음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만드는 건데 그런 정신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 해당 유가족들은 정신이 없거든요.

**배은심**      그런 부분을 우리 유가협이 채워 주지 않았나 해요.

**박래군**      어머니하고 가면 항상 경찰한테 막히는데요.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경찰을 뚫고 들어가요.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러면 저희도 덩달아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명망이 있으니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여론몰이를 하기도 하고,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손도 잡아 주고 그랬죠. 여기 한열이 어머니도, 종철이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지만요.



## 장남수

어머니를 생각하면 몇 번을 생각해도 고마우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모아 놓고, 흠어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흠어지게 했지만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유가협이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심** 그래도 어머니처럼은 못 했어요. 어머니가 하는 모습을 따라 했지만요. 제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가 전태일 17주기였어요. 70년대, 그 엄혹한 세상 속에서 17년을 사셨으니 우리가 100년 산 것만 하겠죠. 그 속에서 사신 분이라 저희는 어머니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엄두도 못 내요. 89년, 90년 이럴 때 전교조 행사를 한양대에서 자주 했는데 그 한양대 행사에 저희가 많이 갔어요. 말도 못하게 갔어요. (웃음) 저희가 안 가면 전교조도 힘이 없어.

**박래군** 유가협이 투쟁하는 데마다 다 갔어요.

**배은심** 전교조도 우리가 없으면 힘이 없어서 못 싸운다니까. 전교조 윤영규 위원장님일 때에도. (웃음)

**이수호** 제일 든든하죠. 그때 전경이고 경찰이고 무지막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앞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배은심**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전교조 투쟁을 잡아 봤는데요. 연세대 노천극장에 못 들어가게 하니깐 못 갔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양대에서 한다는 연락을 받고, 봉고차를 타고 갔어요. 채영이가 몰고 갔는데 가다가 핑크가 났어요. (웃음)

**이수호** 그게 1989년 5월 28일이죠.

**배은심**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너무 심심해요.

**장남수** 그때는 모든 집회가 불법 집회입니다. 그래서 유가협 어른들이 그 집회에 1차 저지선이 돼서 싸우면, 우리를 끌어내는 동안 집회 주최 측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이수호** 경찰들 야단도 치고. (웃음)

**배은심** 경찰들 방패 앞에 가면 경찰이 울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박래군** 유가족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배은심** 경찰들도 방패 잡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입 벌어지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앞에는 최루탄이 없어요. 최루탄은 멀리 날아가니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철망으로 가린 얼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너희가 미워서 그러냐. 옷이 밍다’라고 했죠. ‘왜 너희들이 앞에 있냐. 앞에 형사를 세워 두지. 왜 너희처럼 어린애들을 세워 두고 우리랑 싸우게 만드냐’라고 고함치고 그랬죠.

**이수호** 이소선 어머니가 눈치가 빠르고, 기지를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박래군** 영악해요. (웃음) 어른한테 영악하다고 하면 안 되나요? (웃음) 진짜 잘 돌아가요.

**이수호** 이번에 구술기록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모두 공통점이 어머니가 눈치가 빠르고, 영민하며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돌파하는 게.

**배은심** 어머니 진심을 모르니까 그런 것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 진심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안 할래요. (웃음)

**박래군** 그거 이야기해야죠. (웃음)

**배은심** 안 돼. (웃음)

## 2. 유가협이 투쟁과 어머니

**이수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요. 유가협은 설립 이후부터 열사들이 바라 오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데요. 그 당시 6월 항쟁의 거리에서도 전대협 창립식, 의문의 죽임을 당한 분들의 사인 규명을 위한 투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언제나 유가협의 이름이 있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가협은 필연적으로 다른 운동 조직과 비교하면 회원 대부분 고령자로 구성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투쟁의 최전선에 있었죠. 이러한 어른들의 활동 덕분에 많은 청년이 용기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가협이 활동한 일련의 투쟁 과정에서 이소선 어머니와 관련한 인상 깊었던 일들을 기억나는 대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실 때 유가협 활동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투쟁과 어머니와의 관련성, 의문사 진

상 규명 촉구, 여의도 천막 농성, 다른 단체들과 연대 투쟁 과정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 등입니다.

특히 대중 연설가로도 상당한 실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른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는 일화도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일, 유가협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일, 이런저런 내외부의 노력을 어머니와 관련지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현장에서 뛰어다니셨잖아요.

**장남수** 저는 여의도 농성 과정에서 일화가 있어요. 어머니와 저희가 420일 동안 있었을 때인데요. 그 전에 민주화 투쟁을 같이했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중 한 분이 천막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수호** 그래요.

**장남수**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이기 때문에 해명하기 위해서 할게요. 어머니가 그분한테 ‘너 뭐 해. 왜 관심 안 가져!’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기에는 농성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 보지도 않고, 보고도 그냥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고, 그 의원이 다른 데 가서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그분도량이 그래선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서 풍찬노숙을 오래도록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어머니 보고도 그냥 확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사과를 한다면 그분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에피소드는 제가 어딜 가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박래군** 아버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장남수** 왜 그러냐면 그분 이야기를 다른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건 그 의원 도량이 좁은 것이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거든요.

**박래군** 어머니 이야기에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례들은 많아요.

**장남수** 의원이라고 하지 않고, 너! 이렇게 했다고.

**이수호** 대통령한테도 그랬대요. 대통령한테도. (웃음)

**박래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수호** 하긴 400일을 넘게 했는데.

**배은심** 네. 그런데 저는 재미있었어요. (웃음) 서문 쪽에 서 있으면 광주 쪽이 보여요. 고속버스를 봐도 광주가 보여요. 그리고 노래 몇 개 부르면 시간 잘 지나가요.

**박래군** 거기서 광주가 보여요?

**배은심** 응, 광주가 보여. (웃음) 뭘 노래인지는 아나?

**박래군** 뭐예요?

**배은심** ‘그날이 올 때까지~, 외로워 마, 서러워 마. 엄마 여기 있으니 힘내~’라는 노래인데요. 몇 번 부르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피케팅이랑 농성이 끝나요. 그런 과정이, 그때 저희의 일이었죠.

**박래군** 아까 사례도 있지만 이소선 어머니는 정치인이고 뭐고 간에 바로 호통을 치세요. 전화해서는 ‘너, 왜 안 오냐. 안 오냐’ 하면서요. 그러면 반대편에서는 찢찢매죠. 그리고 다음에 찾아오면 어머니가 살살 달래서 풀어 줘요. (웃음)

**배은심** 제가 어느 날 광주 갔다가 올라왔는데 한울삶에 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쌀이 없어요?’라고 하니까 ‘나 밥 안 해 줘도 돼. 쌀 못 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수첩 가지고 와 보세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전화 한번 해 보세요’ 했어요. (웃음) 그러면 시작이 키 크신 단병호 위원장님한테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웃음) 눌렀으니까 어머니 받아 보세요. 하면.

**박래군** 한열이 어머니가 번호 누르고, 이소선 어머니에게 바꿔 주는 거예요.

**배은심** 통화하면 ‘나 이소선, 쌀 10킬로만 보내 줘’ 하고 전화를 끊어요. 별말도 없어. 딱 열 사람한테만 전화하는 거예요. 많이 주면 안 되니까 10킬로만 달라고 해요. 제가 ‘어머니 진짜로 줄까요?’ 하니까 어머니가 ‘봐야지!’ 줄 거라고도 안 해. 그냥 ‘내일 아침에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되니까 단병호 위원장님이 쌀 10킬로에 찹쌀을 보태서 보내온 거예요. (웃음) 그리고 우원식 의원님도 덜렁 10킬로 보내고, 오전이 되니까 10킬로씩 열 개가 다 들어왔어요. 쌀 벌기 참말로 쉽네. 그러면서 밥해 먹었어요.

**박래군** 유가협이 초기에는 회비도 없고 돈이 없었어요. 그럴 때 마다 어머니가 수첩을 이용해서 공작을 하고. (웃음) 그리고 우리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어머니한테 질러. (웃음)

**배은심** 아무도 그렇게 못 해요. 감히 어떻게 달라고. ‘보내 줘!’라고 하겠어요. 그런 일을 어머니가 했고. 그래서 한울삶이 돌아간 거예요. 묘해요.

**이수호** 아까 배은심 어머니께서, 이소선 어머니가 집회 같은 곳에 가면 말씀이나 연설도 당차게 잘하시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가진 그런 돌파력, 현장 분위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연설은 너무 길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웃음)

**배은심** 연설을 길게 해요. 그럴 때 그만하라고 쪽지 몇 개가 올라가요. 그러면 버럭 ‘뭐 하러 연설하라고 했냐!’ 한 다음에 한참을 더해요. 또다시 쪽지 올라가고.

**박래군** 쪽지를 보고는 어깃장 놓는다고 더해요. (웃음)

**배은심** 진행 측에서 ‘그만하세요’ 하면 ‘그럴 거면 나 보고 왜 올라가라고 했냐!’ 하면서 계속 말해요.

**박래군** 그런데 어머니 연설은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현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웃고 그래요. 일단 재미있어요. 그런데 집회 주최 측은 빨리 끝내고 행진 나가야 하는데 난감한 거죠. (웃음)

**배은심** 엇그저께 망월동에 가 있었는데요. 5월 19일에 민주노총에서 왔어요. 제가 거기 있으니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옛날에 노동자대회를 하면 어머니가 가시니까 저희도 다 가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가 안 가시니까 그쪽에서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박래군** 요즘 안 불리요?

**배은심** 안 불려. 오라는 사람도 없고 저희도 안 가요. 예전 대회에서는 이소선 어머니가 올라가서 한 말씀 하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잡히고 그랬는데. 참….

**박래군** 이수호 위원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웃음)

**장남수** 이수호 위원장님이 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와서 유가협과 노동운동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안 부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우리를 부르고 그래요. 이번에는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던라고요. 그 친구는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가 경기 동부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 찾아왔어요.

**박래군** 양경수 위원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수호** 예의 바르죠.

**장남수** 예전에 쌍용차나 이런 데는 유가협 알지도 못해요.

**배은심** 모르는 게 당연하면 몰라야 하고, 지금은 개들 싸워도 우리가 싸워 주지도 못하니까 몰라야 하는 거예요.

**박래군** 예전에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활동력이 있을 때인데 지금은 몸이 연로하시니 힘들어서 못 해요.

**장남수**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유가협이 가면 보탬이 되지만 지금은 단위노조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요. 어머니가 회장일 때 쌍용차에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쌍용자동차 위원장이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었어도 유가협을 모르는 거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박래군** 한상균에게 꼭 이야기해 줘야겠네요. (웃음)

**배은심** 아마 다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이수호** 네. 하여튼 유가협 자체도 그랬고, 회원들도 그랬고, 이소선 어머니는 더욱더 그랬고. 어렵게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조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서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앞장서서 싸워야 하고 지켜 줘야 한다는 의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터지면 먼저 달려가는 상황이었죠. 그 또한 시대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안으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어머니가 순간순간 발휘하는 기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함께하면서 좋은 일도 많았는데요. 힘든 일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배은심** 힘든 일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입을 닫고 저세상으로 가야 해요. (웃음)

**장남수** 이야기하다 보면 누워서 침 뱉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말 안 하려고 해요.

**배은심** 2007년 전에만 유가협이고 우리였지. 2007년 이후에는 저희가 없어요. 2007년 전과 후로 나뉘죠.

**박래군** 그 이후에는 유가협이 분열되고 그랬죠.

**배은심** 지금 우리 장남수 회장님께서 지키고 있다는데 뭘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지킨 게 있었거든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요. (웃음)

**박래군** 아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고 한 게, 유가협이 분열되면서 유가협에 대한 위신이 꺾이고 그랬어요.

**배은심** 못 살아요. 못 살아.

**장남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결의를 해서 이 사건을 고발하자’라고 논의했지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안 했어요. 참 별별 일이 많았어요.

**이수호** 제가 끼어들 일은 아니지만 참 어른답게 잘하신 것 같아요. 맞상대해서 싸우고 하기보다는요.



**배은심** 저는요. 제가 아들을 먼저 물어버리고 혼자 울고 그랬지만요. 그래도 전철에서 혼자 울었던 적이 없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전철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 그 사람들도 부러운 거예요. ‘저 정도면, 나도 아들이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번은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큰 행사를 했는데 유가협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여의도에서 동대문까지 오면서, 우리 협회 이름이 없어서 전철에서 울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집회 연 사람을 보면 ‘야!’ 소리가 나와요.

유가협이 87년부터 2007년이었으니 20년이 더 되었죠. 그 세상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가협이 우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유가족 이름을 빼버려서 한없이 울고 온 적이 있어요. 나는 그게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모든 재야 단체 이름에서 빠지니까요.

**박래군** 제가 혼내 줄게요. 누구예요? (웃음)

**장남수** 두 이름을 넣기도 뭐하니까 아예 빼버린 거죠. 제가 지금 8년째 회장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진보 단체나 우리 아는 단체에게는 ‘유가협 이름을 두 개 넣으려면 넣지 마라. 만일 두 개를 넣는 곳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단법인 유가협’이라는 단체는 어떤 행사장에도 이름이 빠져 있어요. 우리 유가협만 있지요.

**배은심** 나는 저렇게 못 야물었나 봐.

**장남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이야기했어요. ‘만일 두 개를 넣으려고 하면, 우리 유가협을 넣어라. 다른 유가협이 오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두 군데를 부르는 곳도 없어요. 저희 유가협만 있어요.

**박래군** 한참 곤란한 때가 있었지.

**이수호** 지금 민주유가족협의회는 아직 임의 단체죠?

**장남수** 사단법인이에요.

**배은심** 사단법인은 임의예요. 자기들끼리 사단법인 만들어서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박래군** 사단법인이 되어 있는 거죠.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장남수** 지금 두 가지 다 등록되어 있어요.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배은심** 알든 모르든 간에 등록이 되어 있든 말든 소용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가 그런 것 만들려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열사들의 죽음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왔죠. 우리는 단체가 임의 단체든 뭐든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이 아니예요. 우리들은 딱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기에. 그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큼 싸워야 얻을지.

**이수호**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소선 어머니가 ‘하나가 되어라. 손을 잡아라. 힘을 합쳐라’ 하고. 특히 노동 쪽에도 ‘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갈라져 있느냐!’라고 하셨는데요. 내부에 그런 아픔도 있으니까요.

**배은심**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어머니는

만날 때부터 ‘양 노총이 하나가 되어서 3일만 파업을 해 봐라. 그러면 정부에서 손들고 달라들 것이다’라고 해마다 이야기했어요. 30년이 넘어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말씀하실 때, 양 노총이 하나가 되라고 항상 이야기하시는데요. 인제 그만하세요. 백날 이야기해도 안 되잖아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40주기 정도 되었을 거예요. 11월 13일 추모제 할 때, 양 노총이 민주인지 한국인지 두 개가 하나가 되어서 커다란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럴 때도 있구나’라고 하시고는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양 노총이 하나가 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나.

**박래군**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하신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은 언젠가 된다’였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태까지 힘들게 싸워서 뭐 하나, 안 되는데’라고 배은심 어머니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머니가 ‘될 것은 언젠가 된다. 기다려 봐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된다’ 하셨죠. 그 의지가 대단한 것이죠. 조금해하지 않으면서요.

**배은심** 그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을 마지막으로 봤나 봐요.

**박래군** 어머니가 기도는 하셨어요?

**배은심** 밤에?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박래군** 그러면서 뭘, 어머니는 맨날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했어요.

**배은심** 어머니는 화투 치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웃음)

**박래군** 나이롱 신자예요. (웃음)

**배은심** 왜 이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 (웃음)

**박래군** 나이롱 신자인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언제 기도했냐? 다 했대요.

**배은심** 어머니같이 잘 가신 분이 없어요. 한울삶에서 우리랑 같이 있다가 7시에 나가셨어요. 밤 10시쯤 되니까 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금방 뜨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고 가셨느냐면요. 낮에 그랬어. ‘한열아, 재미있는 이야기해 줄게’ 하더라고요. ‘해 보세요. 뭐가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일 해 줄게 오늘은 아니야. 왜 그런지’ 하시더라고요. 나가시기 전에 ‘한열아, 내일 재미있는 이야기해 줄게’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그렇게 되신 거죠.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리 한번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어머니의 복이 아닌가. 어머니는 대단한 복을 타고나셨어요.

**박래군** 어머니가 이야기하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였을까?

**배은심** 나도 몰라. 안 가르쳐 줘.

**박래군** 별거 없었을 수도 있어요.

**배은심** 짐작은 가지. 그때는 유가협이 어수선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묘한 전화가 올 때도 있어요. 어머니가 우스운 전화를 받았어요. ‘재미있는 이야기해 줄게’ 했는데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

고, 어머니가 가신 것이죠. 어머니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예요.

**이수호** 네. 이렇게 하다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배은심** 어머니하고 산 이야기를 하면 첻바퀴 도는 거랑 똑같아. 한 바퀴 돌면 내일 또 그 얘기. (웃음)

(중간 휴식)

### 3. 유가협 의 일상

**이수호**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가협의 일상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가협은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을 가슴에 품은 분들이 모인 단체이죠. 그럼에도 유가협이 30년을 훌쩍 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회원들이 생활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치 또 다른 가족처럼 서로의 아픔을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유가협 회원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과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모습을 보여 주셨는지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공동체 한울살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아까 대체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못다 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시화전이나 후원자들을 어떻게 챙기셨는지. 한울살에서 유가협 회원들의 일상은 어땠는지, 가족교실도 있었고 <어머니의 노래>라는



창신동 한울살 앞에서 이소선(서 있는 첫째 줄 사람들 중 오른쪽에서 두 번째), 박래군(가운데 앉아 있는 남자), 199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공연 기획 등.

회원들이 자식이나 가족의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치유의 방식으로 유가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해 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들, 유가협에 신입회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특히 이소선 어머니가 새로운 유가족을 만나고 위로하는 방식, 어떤 경우에는 일부 유가족들이 생각이 달라 어머니를 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 어머니가 보여 주신 태도, 그 밖에 유가협 회원과 이소선 어머니의 친소 관계 및 기억나는 일화, 고스톱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두런두런 해 주세요.

**배은심** 저는 고스톱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웃음)

**박래균** 고스톱 이야기?

**배은심** 네. 그것은 기자분들이 오셔도 절대 사진도 못 찍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다. (웃음)

**박래균** 여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가협에서 고스톱 많이 친 거 다 알아요.

**이수호** 유가협에서 연로하신 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 아프잖아요. 그런 것을 잊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놀이인데 그걸 무슨 노름이라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니죠. 도박이 아니에요. (웃음)

**장남수** 요즘은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잖아요. (웃음) 그

리고 100원짜리 고스톱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 보내기 제일 좋아요.

**배은심**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래균** 어머니는 끝이었어요. (웃음)

**이수호** 아까 누가 빠꾸미라고 표현했잖아요. (웃음)

**박래균** 요즘은 유가족들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 잃은 슬픔을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 해요. 가까운 친척한테도 못 해요. 유가족이 되는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고 끊어지는데요. 유가족들끼리 같이 모여 있으니까요. 같이 웃어도 흥이 안 돼요. 유가족들이 밖에서 웃으면 괜히 ‘어떻게 자식을 잃고 웃고 살 수 있냐’라고 하거든요. 그런 눈치 없이 한울삶에 모여 스스로없이 이야기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유가족들 대하는 것을 보면 맨 처음에 무조건 손을 잡고 안아 줘요. ‘얼마나 힘들냐, 나도 힘들었다’ 하는데 말하는 의미가 정말 크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소선 어머니. 그래서 다른 유가족들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기가 어렵지, 유가협과 한울삶에 와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빼떡하지 않은 이상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배은심** 맞아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박래균** 열사가 돌아가시면 처음에 유가족들이 영안실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곁을 같이 지켜 주고, 어머니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코치를 해 줘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여러

회유가 들어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유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이소선 어머니에 대해 의지하는 게 매우 크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든 해 주세요. 경찰 관계자나 정치권 관계자를 동원해서 어려움을 풀어주세요. 장례까지 치르니까 유가족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러 와요. 어머니의 ‘네가 어떻게 사냐’라고 위로하는 그 말이 가족들을 함께하게 만들고, 찾아오게 하지 않았을까 해요.

그런데 유가족들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 어머니가 사용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하게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저에게 ‘박 선생,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세요. 평소에는 항상 ‘래군아’ 하고 부르다가 그럴 때는 ‘박 선생’이라고 불러요. (웃음) 그런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세요. 어떨 때는 장황하고 어떨 때는 간략하게 결론을 내세요. 자기 생각을 남의 입을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결론을 유도해 내셨어요.

**배은심**      그럴 때 말일세. 그러니까.

**박래군**      한열이 어머니는 성질이 급하시니까 먼저 지르고 나가잖아요. (웃음)

**배은심**      지금 광주에 트라우마센터인가가 형성되었어요. 요즘은 시도마다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잘났었으면 우리가 트라우마센터를.

**박래군**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트라우마에 관해 이야기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2000년대 후반에 생겼어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위현장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어머니를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서, 다음에는 정부에서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지금처럼 찬밥 신세는 아니지 않을까... (웃음)

**박래군**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에 관련한 일이 2013년인가? 광주에 트라우마센터 만든 게 처음이에요. 5·18이 1980년이었는데 2013년에 만들어졌으니 33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은 세월호 때예요. 유가족들 관련하여 트라우마 이야기한 게.

**배은심**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센터의 원조인데. 원조를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못 찾았다는 것이죠.

**박래군** 유가족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유가족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되었던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상당수가 어머니를 만나서 말씀 한마디를 듣거나 어머니한테 부탁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지금 트라우마센터처럼. 사실 별거 아닌데.

**배은심** 그러니까 어머니를 소장으로 만들고, 내가 그다음에 가서... (웃음)

**박래군** 어머니가 잘하는 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배은심**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죠.

**이수호** 어머니가 영민하신 부분 중에.

**박래군** 때론 영악하세요. (웃음) 영민하시죠.

**이수호**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평소에는 ‘래군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라고 하고.

**박래군**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그래요. ‘박래군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 (웃음) 그러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수호** 사실 그런 호칭들이 청계피복노조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언니’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부르면서 적절하게.

**장남수** 포용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박래군** 또한 서열을 위계화시키지 않고 누구한테든 편하게 하세요.

**이수호** 제일 편하게, 상황에 필요한 명칭을 만드신 거네요. 두 분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나요?

**배은심** 우리는 애들 이름이 우리 이름이에요.

**장남수** 부를 때 ‘현구야’ 하지, ‘남수야 또는 누구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배은심**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장남수** 트라우마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유가협 회원 중에 ‘친구와 친지가 다 외면할 때 유가협에 오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음을 돌리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아니면 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배은심** 대부분이 다 그래.

**박래군** 맞아요.

**장남수** 그런 것을 봐도 트라우마센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와 보니까 나만 그런 경우를 당한 게 아니구나. 싸우고 다투긴 해도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배은심** 싸우고 다투어도 금방 마음을 돌린 것은, 당신은 미워도 아이들 사진을 보면 안 미워요. 당신들은 미워도, 저 사진은 안 미워요. ‘저 눈동자를 봐라. 우리가 왜 미워하겠냐.’ 그런 것이 우리들의 먼저 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지 않나 해요.

**박래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가족들이 의견이 안 맞을 때 ‘애들 눈동자를 봐라. 애들 앞에서 부모가 되어서, 유가족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줘서 되겠냐’라고 하셨는데요. ‘재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게 또 하나의 무기였어요.

**배은심** 그 표현은 지금도 해요. 옛날만 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다 우리가 잘못이지 너희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죠. 마음의 분노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장남수** 어머니의 포용력 덕분에 유가협 회원이 늘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1997년도까지만 회원 신청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권위적인 정권, 독재 정권을 김영삼 정부까지 규정했어요. 권위적인 정권에 항거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의 부모들의 모임, 단체인데요. 그 이후는 현재 안 하고 있어요. 1997년 이후 노동자 사망 수가 몇백 명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이제 각 단위노조가 힘이 세졌으니까요.

**박래군** 별도의 추모사업회를 만들죠.

**장남수** 각 단위노조가 힘이 강해져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굳이 유가협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 유가협에 왔었는데요.

**박래군** 전에, 용산 참사 유가족은 회원으로 받았잖아요.

**배은심** 용산 참사 가족은 회원으로 받았어요.

**장남수** 예외가 있어요. 이옥순 남편 권낙기 씨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용산 참사 유가족도 받아들였어요. 세 분이 가입되어 있어요. 두 분은 안 오셔서 못 했고요. 예외였어요. 그 외에 노동자 관련된 분들은 없는데요. 태삼이가 항상 그 주장을 해요. ‘다 받아 주자’ 그런데 받아 주고 싶어도 오지 않아요.

**배은심** 받아 주고 안 받아 주고가 아니라 용산 참사 하면 다 온 것이죠. 그렇게 일축해버리면 편한 거 아니에요? (웃음)

**박래군** 유가족이 되어도 유가협에 찾아오는 일이 예전과는 다르죠. 우리도 그만큼 찾아가는 게 예전보다 덜해진 것이죠.

**이수호** 절박함이나 요구 같은 그런 것들의 길이 달라졌죠.

**박래군** 그때만 해도 유가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요. 도와줄 수 있는 곳들이 없으니까. 지금은 단위노조도 생기고 민주노총도 있어서 달라진 것이죠.

**이수호** 어머니와 유가협,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를 한울삶에서 거의 20년을 기거하다시피 하셨는데요.

**배은심** 기거하다시피가 아니라 기거했어요. 어머니가 한울삶에 계실 때는 어머니네 가족들이 어머니가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니도 건강하셨고. 한울삶에서 365일 기거하시니까요. 집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굶었는지 식사하셨는지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살았을 거예요. 제가 가끔 자식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자네 어머니가 여기 계셨을 때, 어머니가 밥 먹었는지 죽 먹었는지 알기나 하나?’라고 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몰라요. 몰라.

**이수호** 그럴 정도로.

**박래군** 아까 가족교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년 동안 겨울마다

했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어머니가 ‘우리 유가족도 역사를 알아야 한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외부 초청 강사를 불렀어요. 초청된 유명한 분들이 유가족들 앞에서 강의하는데 잘 못해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유가족 기에 놀려요. 박태순 선생님도 유명하시잖아요? 유가족을 놓고 강의하는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너무 재미없게 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래서 강의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이소선 어머니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자’ 하면서 가족교실을 만든 거예요. 그때 유가협에서 89년도 겨울인가요? 그때 처음 했었을 거예요.

**배은심** 91년까지 하지 않았나?

**박래군** 한울삶을 만들고 89년도부터 91년까지 했나 봐요.

**배은심** 91년도에 <어머니의 노래>인가? 할 때까지예요. 4월 6일 날인가.

**박래군** 그래서 저하고 정미경 간사가 있었는데요. 둘이 프로그램을 잡아서 유가족교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교장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30세였는데요. (웃음)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죠. 그러고는 역사도 얘기하고 투쟁가도 가르쳐 주고 그랬어요.

**배은심** 그때 래군 씨가 더 오래 있었으면 가족교실을 더 오래 했을 텐데, 근데 벼락이 떨어져서 도망가버렸어요. (웃음)

**장남수** 94년도죠?



**박래군** 93년도 9월에 그만뒀어요.

**배은심** 편지 한 장 써 놓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무산되었어요. 자네 책임도 있어. (웃음)

**장남수** 어머니가 유가족협회를 만드시고 초대 회장부터 하셨다면, 처음 기틀을 잡은 것은 래군이예요.

**박래군** 이소선 어머니 배후 조종을 받아서 한 것이죠. 저도 잘 몰랐어요. 단체 활동을 안 해 봐서요.

**장남수** 그다음부터 유가협 사무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책임감도 투철하지 않고, 오래 하지도 못해서 책임 있게 못 했어요. 래군이가 만든 틀을 따라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했어요.

**박래군** 처음에 재미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겨웠어요. (웃음)

**배은심** 래군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아버지가 아파트를 줄 때, 자네가 신용불량자였지?

**박래군** 아니요. 저 신용불량자 된 적 없었는데요. 어머니 왜 왜곡을 시키세요? (웃음)

**배은심** 그러면 봉고차는 누구 거였어? 봉고차 자네 것 아니었나?

**장남수** 그래요.

**배은심** 본인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쳤구나.

**박래군** 유가협 후원회에서 새것은 아니고 봉고차 중고를 샀어요.

**이수호** 봉고차 살 때 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박래군** 누구예요?

**이수호** 이행자 씨가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감옥에서 아마 나을 즈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배은심** 89년도인가 그러지 않아요?

**박래군** 그 뒤에 91년도인가 그랬어요.

**이수호** 우리도 뭐 쥐뿔도 없으면서 영치금 들어온 것을 몽땅.

**박래군** 그랬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요.

**배은심** 후원회 쪽에서 한 거라서 잘 모르죠.

**이수호** 제가 사 드린 거예요. (웃음)

**박래군** 이제 알았네요.

**배은심** 93년도인가 ‘후원회 밤’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 차를 얼마나 함부로 몰고 다녔는지 산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97년쯤 되었는데 한울살 현관에 한 3년을 세워 났어요. 그런데 박래군 씨 앞으로 되어 있는 거죠. 구청에서 날아온 게 불법주차 딱지인 거예요.

**장남수** 딱지가 18장이었어요. (웃음)

**배은심** 광주에 불법주차 딱지가 또 두 개가 있었고, 박래군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갖다 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7개인가 18개 불법주차 딱지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마침 서울대 장터가 열리게 된 거예요. 종철이 아버지랑 장터를 할까 말까 하고 있던 차에 ‘서울대 장터를 해서 차를 정리하실래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들이 ‘돈 벌어서 차 없애버리자’라고 했어요.

**장남수** 97년 이야기일 거예요.

**배은심** 97년인지, 10월인가 11월이었어요.

**박래군** 몇 년은 잘 타고 다녔어요.

**배은심** 그렇게 돈 벌어서 구청에 불법주차 딱지 십몇 개를 정리하고, 광주 가서도 딱지 정리하고 폐차하는 데 180만 원인가 얼마가 또 들고.

**장남수** 딱지값만 180만 원이면, 18장이 더 되는 것 같아.

**박래군** 아이고, 이수호 선생님 영치금으로. (웃음)

**배은심** 그건 오늘 처음 들어요.

**이수호** 그건 이행자가 잘 알아요.

**배은심** 그가 총무였어요.

**박래군** 그때 유가족 후원회 회장이 문익환 목사님이셨고, 부회장이 이행자 누님이시고, 총무가 이승혁이었죠.

**배은심** 말 듣기로는 래군이 아버님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라고 하니까 차가 박래군 앞으로 되어 있는 데다 불법주차 딱지가 쌓여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박래군** 불량자 된 적은 없는데요. (웃음)

**배은심** 저도 모르고.

**장남수** 제가 듣기로는 불량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벌금 낼 게 180만 원 이상 되면 뭐가 있는 거 몰라?

**박래군**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전과가 많았어요. 벌금도 있고. 그래서 제 앞으로 명의를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집사람 명의로 하기로 한 거예요.

**배은심**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래군이 앞으로 차가 있는데 래군이 조심 안 하고 병원 밑에 차를 주차해서 그렇게 불법주차 딱지가 많았다고 했어요.

**박래군** 강 모 씨가 그랬어요.

**장남수** 거기 대니까 계속 대는 거야.

**배은심** 여담이야 그건. 그런데 오늘 진지한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돈을 많이 내신 분은. 어이구야.

**박래군** 처음이에요.

**이수호** 모르셔도 되고요. (웃음) 아까 말씀할 때 래군 씨가 살짝 피했는데요. 왜 편지를 써 놓고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박래군** 유가협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푸념을 했죠. 어른 들하고는 일 그만하고 나도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가족교실도 만들고, 가족교실은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족교실 할 때 지방에서도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눈 와도 오고, 한열이 어머니도 광주에서 오고요.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실태를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요. 그리고 교실 하다가 이소선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이야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주무시고 가실 분은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후원회는 제가 이소선 어머니랑 종철이 아버지랑 ‘후원회 만들면 어떻겠냐. 회비만으로는 어려우니’라고 논의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후원회 분들이 잘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93년도에 총회 할 때 이상한 흐름이 생긴 거예요. 강 모 아저씨가 별도로 사람들을 몰래 조직해서 어느 분을 회장 시키는 과정이 너무 배신이었고. 유가족을 갈라지게 하는 현상이 환멸스러웠어요.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마음 아파했죠. 기존에 유가협을 이끌어 왔던 분들에 대해서 왜곡된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을 피고, 거기에 일부 회원들이 혹해서 회장을 바꿨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임 회장을 모시고 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장황하게 편지를 써서 회원들에게 보내고 공식적으로 유가협을 떠났죠.

**배은심** 그게 94년인가?

**박래군** 93년 9월.

**배은심** 그러면 조찬배는 2년을 안 하고?

**장남수** 조찬배는 2001년이고. 그 뒤로 강민조 씨를 회장 시키는 데.

**박래군** 드디어 강 씨 본명이 나왔네요.

**장남수** 바로 초대 회장 선출 때 뽑히지 못한 김재훈 씨가 계속 유가협에 협조 안 하다가, 자기 힘으로 못 이겼는데 누구 한 명이 들어오

니까…. 그때 그쪽을 따라다닌 분들이….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욱 잘하시던 아버지인데.

**박래군** 실명 말 안 해도 돼요.

**장남수** 그렇게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한 번은 먹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회장이 뽑힌 거예요.

**박래군** 그걸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장남수** 초대 회장을 못 했던 양금이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96년부터 수도권 회장을 했는데요. 김재훈 씨는 제가 알기로는 회비 낸 적이 없고, 참여도 안 했어요.

**이수호** 어쨌든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셨지만 진정한 유가협은 그 때까지다.

**배은심** 네 맞아요.

**이수호** 그 이후로 내분이 일어나고.

**박래군** 회복이 되면서 여의도 농성도 거치고.

**배은심** 여의도 농성 때 그 사람들이 온 줄 알아?

**박래군** 안 왔지.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가협이 재건되는 것이죠.

**장남수** 94년 1년 하고 나서는 강민조는 존재도 없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잘 운영되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법을 만들어 놔는데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예전에 명망가들이 있어서 선물 받았다는 명목으로 그분들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도 명예회복하고, 사망자로 인정되었는데’ 하는 것을 우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당선이 안 될 거였어요. 그런데 2002년 선거에서 조성만 아버지가 하셨는데요. 임기는 1년인데 1년 더한 적이 있어요. 한 번 더하겠다고 추천했는데, 그쪽에 강민조가 입후보한 거예요. 그런데 조성만 아버지가 추천을 받아 놓고 후보자가 입후보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강민조가 회장이 된 거예요.

지금도 미스터리인데요. 같은 지역 사람 두 명이 입후보했는데, 우리가 싫은 사람도 누구 한 명이 사퇴하면 무투표 당선되잖아요? 저도 그걸 우려했어요. 전날 밤에 점검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경우를 따져 봤을 때 91명이었어요. 저희가 50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의문사 쪽 가족들이 강민조 편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길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둔 거예요. 원래는 강민조도 피선거권이 없어요. 호남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하고 수도권에 오겠다고 말만 한 채 가입을 안 했어요.

유가협은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수도권은 회비를 안 내도 봐줬어요. 회원으로 유지했어요. 그 경우가 김재훈 씨 같은 경우예요. 강민조는 전혀 회원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가만히 있었어요. 질 것 같으면 입후보 자격 박탈을 했죠. 그걸 믿고 있었는데 조성만 아버지가 입후보해 놓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임시 회장이 강민조를 회장으로 선포한 것이죠. 어머니도 참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수호**       어떻든 여러 혼란 속에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소선 어머니는 한울삶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계속 지키셨잖아요. 힘들 때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을 모으게 하고.

**장남수**       한마디로는 그래요. 유가협에 누구라도 계시면 유가협에 득이 되는데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여기 계십니까. 나가시오’라고 별 방해를 하면서.

**박래군**       어머니가 수모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도 지키려고 하고.

**배은심**       말도 못 해.

**장남수**       어머니는 지키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보일러 끄고 욕을 하고 그랬었죠.

**배은심**       안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박래군**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로 안 좋은 이야기를. 유가협의 흑역사. (웃음)

**이수호**       애들 말로 팩트. 사실관계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박래군**       〈어머니의 노래〉 공연 이야기를 해 주세요.

**배은심**       나는 그냥 불러버렸으니까. (웃음) 그런데 그날 하다가 난리가 나서 중단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박래군**       그게 91년도 4월에 〈어머니의 노래〉 공연을 했잖아요. 그 전해에 유가협 노래를 만든 김제섭 씨와 몇 분이 제안을 하셨죠. ‘아버지, 어머니들 노래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무슨 노래를 하나?’고 난리를 쳤는데 ‘유가족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한 거예요. 이소선 어머니도 ‘우리가 뭘 하나’고 하셨죠. 유가족 후원회에서 설득하니까 하게 됐죠. 김제섭 씨가 노래 연습하는 시간이 되면 열심히 연습했어요. 91년 4월 27일에 연세대 대강당에서 노래 공연을 했어요. 〈어머니의 노래〉라고 해서 공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어머니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주로 어머니들 중심이었어요. 아버지들은 잘 안 하고. (웃음)

언론에도 홍보 많이 했어요. 취재도 많이 해 가서 기사에 실리고, 문기도 많이 오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표도 많이 팔릴 것 같았어요. 공연 전날 4월 26일에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총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지대학교에서 강경대가 죽은 거예요. 세브란스로 옮겨 와서 갑자기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연세대학교가 원천 봉쇄되면서 싸움하는 판이 만들어지고,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수호**       제가 집행위원장이었어요.

**박래군**       그래서 4월 27일에 공연을 하는데요.

**배은심**       공연은 했나?

**박래군**       했죠. 총학생회가 학교 후배들이니까 이야기를 했죠. 전대협 애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연이 있는데, 성사될 수 있게 투쟁 일정을 조정하자’ 했더니 ‘의논해 볼게요’라고 했는데 의논이 안 돼요. (웃음)

음)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분명히 그 전에는 2,000석이 다 찰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좋았는데 채 500명이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시 낭송도 하시고 그랬어요. 감동적인 공연이었어요.

공연을 마치자마자 유가족들은 영안실로 찾아간 것이죠. 그때 (김)귀정이 5월에 장례 치를 때까지 두 달 동안 영안실을 지킨 사람들이 유가족들이에요.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해서요. 유가족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동에서 죽은 김용균, 광주에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때 잊지 못하는 것이 김지하 칼럼이에요. 91년 5월 5일 조선일보에 「죽음의 고향을 견어치워라」라는 칼럼을 실어요. 어머니가 김지하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유가협에서 성명과 기자회견을 준비해서 발표도 했는데 별로 안 알아주죠. 그런데 계속 사람이 죽으니깐요. 그때부터 유가족들이 모이면, 어머니와 유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죽을 일이 있으면 살아서 같이 싸우자. 제발 그만 죽고’. 그런데 거기에 박홍이 어둠의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한 것이죠. 91년 5월을 생각하면, 올해가 30년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이수호** 그때 어머니가 연세대에서 노래를 불렀다면가요?

**배은심** 그때 한복 입고 불렀어요. 미쳤죠. (웃음)

**이수호** 조금 불러 봐 주세요.

**배은심** 뭣이 나와야 부르죠. (웃음)

**이수호** 기억 안 나세요?

**배은심** 기억나요. <민들레> 다큐멘터리 보면, 어머니 묘소 가면서 민들레 노래 부른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제가 부끄러워서 제발 편집하라고 했는데 편집도 안 했어요.

**박래군** <민들레>라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이경순인가요? 그 분이 만든 것인데요.

**배은심** 김경숙이 PD인가?

**박래군** 김경숙 아니에요. 이름은 비슷한데. <민들레>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주 내용이 98년도 99년도 여의도 농성이에요. 그 안에 유가협의 여러 가지 역사가 들어 있죠.

**장남수** 경순이?

**박래군** 경순은 맞아요. <민들레>라는 다큐멘터리가 남아 있죠.

**이수호** 노래 한번 불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은심** 못 해요. 다 잊어버렸어.

**장남수** 어머니 거기가 마석이에요?

**배은심** 어머니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래되었어요.

**이수호** 어쨌든 유가협이 우여곡절과 온갖 고난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지금 장남수 회장님이 든든하게 지켜 주고 계시는데요. 이소선 어머니와 같이 역사가 같으니까요.

**배은심**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어머니가 약을 한 움큼씩 드세요. 하루에 두 번씩 드세요. 무슨 약인지 모르는데 봉투를 다 열어 놓고 한 움큼씩 드세요. ‘어머니 무슨 약 드세요?’라고 물으면 약 이름도 다 알아요. ‘이것은 무슨 약, 이것은 무슨 약’ 해요. 그리고 밤에는 저랑 수면제를 나눠 먹었어요. 어머니가 약 먹으면서 ‘보약 줄까?’ 하세요. 잠 오는 약을 보약이라고 불렀어요. 반 나눠서 줘요. 상당 시간 동안 안 먹었는데,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딱 반 알만 먹어요. 한 알 다 먹고 그렇게 적응이 되면 무서우니까. 이소선 어머니한테 배운 것들이 끝까지 갈 건가 봐요. (웃음)

**박래군**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활발하게 계시다가 주무실 때는 끄끙 앓으세요.

**이수호** 그렇죠.

**박래군** 그때는 투쟁 현장에서 몸싸움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경찰 버스에 실려서 어딘가에 버려져요. 어른들을 이상한 곳, 난지도나 미사리 같은 곳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찾아서 유가협으로 오는 거예요.

**배은심** 어디로 찾아오라고 해요. 지금 국립묘지 앞에 빈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오라고 해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요. 거기에서 모이자고 하면, 거기 모여서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박래군** 그러고는 다시 유가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죠.

**배은심** 싸우고 울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없는 유가협은 사람 사는 곳이나?

#### 4. 유가협의 과제

**이수호**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소선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소선 어머니와 유사한 삶의 궤적을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도 다른 분들과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인간으로서 이소선 어머니 삶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또한 열사들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 앞으로 유가협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은 어떠한지 좋을지. 마지막으로 열사 및 유가협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못다 한 이야기, 다시 생각나는 이야기, 미진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세요. 이소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자기 이야기도 좋습니다.

**장남수** 어머니는 제가 알 때도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당뇨가 심했어요. 인슐린 주사도 혼자 맞았어요. 그래도 유가협을 정신력으로 포용하고 이끌어 오셨어요. 어머니는 머리도 좋았지만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유가협은 다른 것보다는, 99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만들기 시작해서 2000년에 제정되었는데 사망자가 136명이 선정되었고, 피해자가 700여 명, 감옥 갔거나 하신 분들을 명예회복자라고 해서 9,700명 정도가 있어요. 2003년부터 민주화 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민주화 유공자법이 4·19와 5·18이 있었기에 당연히 될 줄 알고, 99년 법 만들 때 유공자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공자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회복법을 만들고 가려진 후에 유공자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 이후에 묘지공원을 만드는 작업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유공자법을 못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초창기에, 2004~2005년에 살아 계신 분들이 9,700명이 있었는데요. 당시 회장을 제가 안 했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386 회원들이 젊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유공자 되려고 감옥 간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한 것이 아니다. 사망자와 피해자만 올려서 하면 몰라도’라고 단언했어요. 반면 법을 발의하는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가협 쪽에서는 사망자, 피해자만 하자고 하고.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 법 발의하면 만들어질 것 같아?’라고 물으니 ‘안 되더라도 발의해야 한다. 그것도 하나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못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사망자, 피해자만 가지고 법 발의를 하려고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니면 방해를 해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국회의원 그만하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섭하던 사람이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몇 차례 그렇게 하

다가 우원식 의원이 ‘저라도 해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법 발의를 시켜 봤어요. 법 발의가 된 상태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은 것이예요.

상해자는 혜택을 받지만 사망자는 아무 혜택을 못 받아요. 교육 혜택도 못 받아요. 대상자가 부모, 처, 자예요.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거의 돌아가셨고. 장가를 안 갔으니 처와 자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육 연령이나 취직 연령도 넘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해당 없는 것 가지고 반대를 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명예회복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을 꼭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무위원회예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가 한 명이 나서서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들 내부의 의견도 조정을 못 하면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 조정을 못 한다는 건, 대상자 합의 부분이에요. 살아 있는 쪽, 9,700명 쪽에서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무위원회에서 법 발의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유가협이 일 안 해서 법 발의가 안 된 것처럼 몰아붙이니까요. 법을 만드는 해당 위원회에 가도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설득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승연대에서 올렸던 명예회복자들도 그걸 못 올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못 올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자기들이 못 올리게 된 것이죠. 그 법을 올리려고 나서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설훈 의원이 올렸다가 몰매 맞고 하루 만에 취하했죠. 그게 과연 유가협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득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너희들 내부 조정도



못 하고 해 달라고 하나'라는 말을 못 할 거예요. 한번 올렸다가 취소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 조정 못 했다는 말은 하지 마라. 이제는 하자'라고 할 것인데요.

문제는 서둘러서 말할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없어요. 대통령이 하거나 국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우원식 의원이 자기는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선 주자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광주에서 만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왔다 갔어요.

**배은심** 국무총리고 이 총리고, 지나간 사람 인사한 게 무슨 소용 있어요? (웃음)

**장남수** 이낙연 총리하고도 만났어요. 이야기만 하면 소용이 없어요. 문 대통령하고도 저랑 촛불집회에서 두세 번 이야기했어요. 이것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야죠'라고 했어요. 저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 명예 회복자들, 그쪽하고도 다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된 다음에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하자고 하니까 '볼 면목이 없어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호** 상황이 안타깝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것이나 유가협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있으실까요?

**배은심** 똑 부러지게 보이는 것이 없네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이 유가협을 여기까지 건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 볼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회장님이 유공자법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 봐도 애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선거철이 되잖아요? 이 선거, 저 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계속 지연됐던 것인데. 선거철을 이용해야 하는지, 예전처럼 선거철을 벗어나서 시도해 봐야 하는지. 그게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과 의논을 해서 시기를 조정해야죠. 한 사람 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유가협의 문제는, 우리들의 숙제는 그거예요.

**박래균** 제 의견을 이야기하면요. 유가협이 1세대 유가족, 이소선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장남수 아버지까지 해서 그분들이 현재 유가협의 어르신들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연로하셔서 옛날만큼 활동하기도 힘들잖아요. 유가협에서 70대만 해도 젊거든요. (웃음)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1세대 유가족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연구가 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꼭 유가협 중심이 아니더라도요.

이소선 어머니가 전태일 선배를 잃은 게 41세였어요. 41년을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활동했던 시간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가족들의 투쟁이나 활동에 관한 연구가 없어요. 일본은 있어요. '열사의 탄생'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 사회학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유가족들이 어떻게 투쟁에 나가게 되고, 어떻게 이소선 어머니처럼 활동하게 되고, 그게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등. 한열이 어머니나 현구 아버지가 한 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전태일재단에서도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아서 유가족 투쟁의 의미를 객관화시키는 학술 토론을 하려고 보니까 연구 자료가 없다는 것이죠. 연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소선 어머니의 단순한

일대기로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고, 다른 분들의 활동도 정리가 된다면 유가족의 투쟁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세월호를 비롯한 김용균 엄마 투쟁들, 이런 투쟁이 다 유가족들이 하는 투쟁이에요. 이 투쟁들이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유가족들이 싸우면 그만큼 달라지고, 성과도 생기면서 우리 사회가 빛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해요.

이소선 어머니가 보여 주었던 헌신적인 생활, 41년의 생활도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후대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민주화운동 유가족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 열사들을 누가 돌봐 줄 것인가?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젊은 나이에 바쳤는데. 국가에서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고. 소위 말해서 묘도 관리해 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본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데요. 그런 게 막혀 있는 상황이 답답해요.



마석민주열사 묘역에서 이소선과 유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배은심** 좋은 게 떠오르네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박래군** 말 잘못했네요. 취소. (웃음)

**배은심** 대표해서 그려 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광주 쪽에 유가족 실태를.

**박래군** 5·18?

**배은심** 우리 유가협 식구들이요. 우리는 전국화니까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고요. 광주나 호남 쪽 어머니와 아버지들 상태를 보니까 다 병

원에 계세요. 광주에서 서울에 올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5명뿐이에요. 그 외에는 다 병원 생활하는 거예요. 서울은 어때요?

**장남수** 서울도 마찬가지로요.

**배은심** 서울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람이 5명도 못 되는 거예요. 합치면 10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숫자를 따지면, 조금 전 박래군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혼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도 아니고 사담도 아니고 전달이 안 돼요. 5명이라도 우리들의 방향을 틀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5명도 100명의 몫을 할 수 있어요. 5명의 방향을 틀어 주면, 예를 들어서 ‘따라서 오세요’ 하면 따라갈 사람은 있어요. 부모님들의 문제는 그 정도고, 우리 2세대. 2세대 단체가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에 5명이라도 제대로 모여서,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해 보면 엄마 아빠들은 지팡이라도 들고 따라갈 테니까요.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이제는 박래군이 해야 해요. 거기도 박 씨네요? 거기 박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앉아 있으니.

**이수호** 좋은 제안이십니다.

**배은심** 언제 그 말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남수** 뭐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안 오니까.

**배은심** 꼬집어 와야죠.

**박래군** 다른 데에서 바쁘니까요.

**배은심** 다른 데 가면 누가 밥 주냐? (웃음)

**이수호** 앞으로 유가협을 가장 필요한 현안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은심** 지금 했던 이야기 반복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노래도 배우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가협 모임, 모임은 학생이 많은 적든 상관없어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박래군** 또 하자고요?

**배은심** 또 하면 좋지!

**박래군** 지금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해요? (웃음)

**배은심** 그럼 내가 만들면 손가락 잡고 올래? 예전에 나도 했으니 안 하려고요. 여의도 천막 쳐 놓고 농성할 때, 오른쪽이 마비되었는데 풀릴 때까지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누가 만들면 손가락 들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노소 할 것 없이 합숙소를 하나 만들어요. 집 있겠다 밥 있겠다 무엇을 못 하겠어요? 박래군이 대표해서 하면.

**이수호** 좋은 제안을 해 주셨네요. 이번에 이 구술기록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신 분이 김대현 작가님이세요. 지금 총지휘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작가님 질문하실 내용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김대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소선 어머니와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이어 가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호** 마지막으로 올해 이소선 어머니 10주기인데요. 이 자리를 빌려 이소선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무리 겸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심** 래군 씨가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회장님이 마무리해 주세요. 이러니까 사회는 내가 봐버렸네. (웃음)

**장남수** 어머니는 일을 많이 하셨고 공도 있지만 그중에서 유가협이 만들어진 데에 어머니의 노력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가협의 앞으로의 진로는, 회원들이 계속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1세대 부모 세대는 거의 활동할 나이가 지났어요. 제가 81세인데 회장이예요. 그 만해야 해요. 이제는 형제 세대들이 와서 해야 하는데요. 청년들 하는 것 보니까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국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활동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문제예요.

유가협도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 부모들이 몸도 늙었고 노쇠했으니까요. 어떻게 활동가 중심으로 유가협을 끌어 나갈 것

인가. 물론 정신은 유가협 회원들이 있는 것이지만요. 일은 활동가들이 할 수 있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몇 번을 생각해도 고마우신 분이예요. 어머니가 모아 놓고, 흠어지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흠어지게 했지만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유가협이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께 한 말씀 해 주세요.

**배은심** 때로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면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이럴 때 어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문익환 목사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이럴 때 박정기 아버님이 계시면 좋겠다’를 간간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어머니와 저희가 벽 너머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어머니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교감되고 있지 않나 해요.

참 묘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들은 ‘돌아가셨으니까’로 정리가 되는데, 이소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속 마음에 얹혀서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제 욕심이 아닌가 해요. 어머니께 무언가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아파요.

**박래군** 저는 단체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었는데 유가협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단체 활동 생활하는 것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특히 어머니는 어쨌든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나누기보다는 차이를 넘어서 하나로 모이게 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것은 언젠가 된다’라는 것도 많이 배웠죠. 종종 이소선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이소선 정신이라는 것을 논의해 보

면 좋겠어요. 전태일재단도 그렇고. 한울삶도 이소선 어머니 자취가 배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때 누구도 집을 만들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가 거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소선 정신을 정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배은심** 집 만들면서 엄마가 얼마나 거짓말을 한 줄 알아요?

**박래군** 알아요.

**배은심** ‘돈을 내놓으면 이자 쳐서 줄 테니까 돈 좀 내놔’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 내놓고 ‘돈 언제 줄 거예요?’ 하면 ‘조금 이따가 주지’ 하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웃음)

**이수호** 선의의 좋은 거짓말.

**배은심** 참 재밌어요.

**박래군** 알면서도 속잖아요.

**배은심** ‘어머니 언제 이자 주실 거예요?’ 하면 ‘조금 이따가 줄게’. 조금 이따 언제 줘.

**박래군** 안 준다는 소리는 안 해요. (웃음)

**배은심** 맞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시겠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되었는데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입이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

까 우리가 헤어지고 난 후에 ‘잘 헤어졌다’는 소리 안 듣고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해요. 어머니는 행복해서 좋겠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고 다음에 만납시다.

**이수호** 지금까지 어머니와 후반의 삶을 함께하신 선생님들의 삶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소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큰 희생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남겨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소선 어머니를 포함한 수많은 열사의 정신이 후대까지 전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작가님, 촬영감독님, 스태프들, 우리 재단의 직원들, 함께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왼쪽부터 박래군, 배은심, 장남수



왼쪽부터 박래군, 배은심, 장남수, 이수호

# 번외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의 의미와 가치

인터뷰 7회차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13:00



왼쪽부터 김대현, 이수호

## 1. 두 분의 어머니

**김대현** 안녕하세요. 제3차 전태일노동구술기록사업 인터뷰에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와 달리 제가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인터뷰이로 모시는 분이 지금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되었던 노동구술기록사업 사회를 보신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전태일 열사, 이소선 어머니와 여러모로 깊은 인연을 맺으신 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취지가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이하여,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수호 이사장님은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맡기 전부터 어머니가 소천하시기 전까지 공적, 사적으로 어머니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사회를 보시다가 오늘은 인터뷰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두 자리에 있을 때 느낌이 어떠신지요? (웃음)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이쪽에 앉으니까 마음이 조금 더 가볍네요. (웃음) 사회자 쪽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잘 끌고 갈까? 오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진행될까?’ 하는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돼요. 그리고 흐름은 작가님이 다 잡아 주셨지만 그래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는 이리 튀고 저리 튀기 때문에 잘 끌고 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요. 인터뷰이 입장에서는 그

런 부담이 적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입니다. (웃음)

**김대현** 저는 말씀 듣기 전부터 그런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웃음) 미숙하겠지만 최대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소선 어머니와 맺었던 인연의 기록들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전태일 열사 친구, 가족,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 유가협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회원들과 달리 비교적 어머니를 늦게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요주의 인물이 된 후에 뵈게 된 것인데요. (웃음) 아마 인연을 맺기 전에도 어머니의 명성에 대해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소선 어머니와 인연을 맺기 전에, 외부에서 보고 들었던 어머니에 대한 모습과 가까운 곳에서 직접 모시게 된 후에 본 어머니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밖에도 어머니에 대한 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예컨대 당시 운동 현장에 어머니가 자주 나가셨는데요. 풍문으로 전해지던 어머니에 대한 모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이소선 어머니는 참 강경하신 분이야’ ‘아니야, 어머니는 다정하신 분이야’라고 하는 의견의 차이라든지, 어머니가 연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나 어머니의 리더십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 등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어머니와 사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계기, 그 이후의 관계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사장님을 동지로 인식했다가 아들로 인식한다든지, 이사장님을 자주 만났을 때 보인 반응 또는 이사장님이 공적 지위에 있었을 테니까 만날 때마다 특별히 이사장님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등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낀 기억이 있는지. 예를 들어 기댈 수 있는 큰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다



는 상실감이나 ‘어머니가 계셨다면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 등입니다.

**이수호** 저는 전태일도 상당히 늦게 만났고, 어머니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늦게 만났어요. 제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무언가 인식이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대학도 야간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도 없었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제 삶에 충실하면서 거기에만 매여 살았죠. 그러다 제가 교사가 되고 이후 서울에 근무하게 된 게 1977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었어요. 1980년대 초에 평전을 통해서 전태일을 만난 것이죠. 그 계기로 삶의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전태일의 삶이 저의 삶 한편에 자리 잡으면서 늘, 같이 있었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1992년 두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친어머니가 돌아갔어요.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만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교육운동 한다, 노동운동 한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시골 노인이셨어요. 제가 그런 운동을 해도 다른 말씀은 별로 안 하시고, 그대로 수긍하시고 대체로 이해하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감옥 가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니까, 자식을 생각해서 또 남은 내 다른 식구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라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교육운동 한다고 전교조 결성한 후 바로 감옥에 끌려갔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평교사가 난생처음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 받고, 검찰에 끌려다니다가 재판을 받는 과정도 생소하고 감옥살이도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처음 감옥에 가서 6개월 복역하는 동안 어머니가 자주는 못 오셨죠. 한두 번 특별면회를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말수가 적고

속이 깊으셨어요. ‘잘 지내라. 기도 열심히 해라’라는 정도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1989년 전교조 결성과 동시에 구속이 되고 감옥 갔다가 6개월 만에 출소해요. ‘이제 다 됐다’라고 다들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한 해 겨울 지나고 1990년 초부터 민자당이 생기면서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와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국민연합이라는 거대한 운동 진영,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의 총집결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어요. 저는 제 별명을 그 당시에도 제가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별명이 ‘마른 막대기’였어요. (웃음) 제가 지금도 살이 많이 찌지 않았지만 젊었을 때는 진짜 많이 말랐어요. 지금 키에 60킬로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에 교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후 군대 가서 군 생활 말년에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른바 교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몽둥이 두 개를 준비해서 나왔어요. 나중에 비폭력 교사 선언하면서 다 버렸지만요.

어쨌든 저는 항상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막대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쓰든, 쓰면 된다. 그게 교편으로 쓰든, 때리는 몽둥이로 쓰든 또는 지시봉으로 쓰든, 나이 많은 사람이 지팡이로 쓰든. 이렇게 막대기는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니까. 실제로 실력도 없었고,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특히 이른바 민주화운동이나 운동에 관해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요. 스스로 실력이 없다. 다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자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막대기로 활용해서 부지깥이로 쓰든, 몽둥이로 쓰든, 지팡이로 쓰든, 여하튼 쓰면 내가 그 역할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른 막대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마른 막대기’로 불렸어요.

제가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역할을 맡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90년 시작하자마자 노태우 정권과의 싸움을 벌이고 전선을 형성하면서 이쪽 진영의 총 책임을 맡았으니까요. 바로 수배를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엄혹한, 그냥 수배령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들이 항상 우리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그 당시 형사들이 집에 와서 초등학교 다니던 저희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 준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형사들이 친절하고, 사탕도 주고, 잘 놀아 주니까 같이 놀았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교사였고, 그 당시에는 교육운동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참교육 운동한다. 교육에 문제가 많은데 저렇게 선생님들이 들고일어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서 그런지 형사들도 꼭 잡겠다기보다는 위에서 하라니까 우리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거였죠. 그렇게 아이들이랑 놀고요. 제 아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따라가고. 그럴 정도로 엄격하게 수배를 받았어요.

어쨌든 저는 바깥으로 도망도 다니면서 그 일도 겸하던 차에 1991년 강경대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전부 연세대학교로 들어가서 일을 맡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이소선 어머니나 재야의 백기완 선생님 등을 만나서 제대로 인사하고 보게 된 것이 그 무렵인 것 같아요. 제가 교육운동 처음 할 때도 교육문제만 가지고 학교 안에서 논의했지, 사회적 연대는 몰랐어요. 그런데 연대운동, 연합운동을 하다 보니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집행 책임을 맡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상당한 권한이 있었어요. 같이 하면서 제가 격려를 받기도 하고, 역할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소선 어머니를 처음 뵈게 되었어요.

여기서 다시 어머니를 만나기 전으로 살짝 돌아가면. 아까 저희 친어머니가 처음 운동할 때 ‘감옥 가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또 감옥 갔잖아요. 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을 하다가 강경대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제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운동의 중심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면, 어머니 병세가 자극을 받고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걱정했는데 피할 수 없으니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 병세가 안 좋아지셔서 결국...

언제 어머니가 형님네 가족이랑 특별면회를 오셨어요. 그때가 아마 암으로 생을 마감할 즈음인데 어머니도 굉장히 내공이 강하신 분 같아요. 마지막으로 막내아들 얼굴 한번 본다고 형들하고 감옥에 면회 온 것이죠. 그 후에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진통제를 맞아 가면서 면회 온 것이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고, ‘몸 항상 조심하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잘 모르지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면회하고 가신 후 일주일인가 열흘 만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그런 예감이 들어 마지막으로 막내아들을 보고 가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992년이네요.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장례를 치렀죠. 1993년에 아이러니하게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으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가 3분의 2 정도 살고 특사로 나왔어요. 나와서 전교조 복직 투쟁을 하죠. 전교조 싸움을 하면서 제가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연대 활동으로 이런저런 다른 진영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그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1977년 어떻게 서울 신일중고등학교에 교사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니까 제가 ‘나는 이제 고아로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 후에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어쩐지 백기완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마음속으로 '내 운동적 삶의 아버지 혹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인사도 드리고, 주로 명절에 꼭 찾아뵙고 그랬어요. 그리고 운동적 삶의 어머니는 이소선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전태일과 저는 나이가 같아요. 맏이와 막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하던 차에 이소선 어머니를 나의 운동적 삶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뵙고 그랬죠.

저라는 사람의 품성이나 성격, 태도랄까요? 대부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은 있지만 태도가 살뜰하거나 말을 정답게 하는 것이나 그런 걸 잘 안 하거나 못 해요. 남들은 저를 볼 때 '말이 없다'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을 잘 안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회의에서나 필요할 때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친하다고 보지 않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적 삶의 부모님처럼 생각했다'는 것도 사실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원래 제 스타일도 그래요. 가족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나 일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런 문제에 제가 개입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적인 일로.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필요할 때 명절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대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사장님의 친어머니와 이소선 어머니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친어머니도 아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응원하고 있었고,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이소선 어머니도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게 말리던 것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자식들이 수난을 받고 있으니까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닐



김대현 작가



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운동적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이사장님이 전태일 열사와 동갑이기도 해서 어머니처럼 모시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에 대한 시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쓰신 것일까요?

**이수호** 그때가 이소선 어머니 팔순기념문집을 낸다고 저보고 뭘 하나 써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경이’라는 제목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를 낳아 주신 친어머니와 이소선 어머니를 대비시키면서 동질성에 대한 것을 썼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웃음)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최종인이나 이승철은 이소선 어머니가 진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표나 김문수처럼 운동적인 관점에서 국면을 바라보고 전술을 마련할 때, 예컨대 무엇이 잘 안되니까 ‘노동청장실을 점거하자. 거기에 가라’라고 했던 경우에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점거하면 감옥 간다’면서 말리는 거죠. 노동청장실을 점거해서 운동적 성과를 달성하고 노동교실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자식 같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게 더욱 마음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소선 어머니는 제가 민주노총 사무총장,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자주 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이나 노조 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투쟁 현장이나 행사 중에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어머니가 저에게는 하대하지 않고, 자기 자식과 나이도 같고 그래서 제가 자식처럼 생각해 달라고 해도 꼭 경어를 쓰시고 아주 정중하게 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표정은 애뜻했지만요.

어머니에 대한 인터뷰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잘 하셨잖아요. 사람마다 호칭도 다르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요. (웃음) 거기에 맞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하는구나 했던 것이죠. 저는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김대현** 그런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웃음)

**이수호** 제가 마음을 활짝 안 열어서 그런지 어머니도 저에게 늘 적절한 경어를 쓰시면서 대하셨어요. (웃음) 제가 설이나 새해 시작할 때 저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세배 또는 인사드리러 가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나 백기완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제 감낭에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웃음) ‘어떻게 해야 더 좋아하실까?’ 생각한 거죠. 과일 사 들고, 용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애들에게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또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내가 부모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너희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느끼게 하는 거였어요.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일화는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는 늘 곁에서 지켜봤는데요. 그중에서도 민주노총 집회나 행사 때 저희가 당연히 초청하잖아요. 불렀을 때는 꼭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해요. 어머니 본인도 원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어머니 성품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자그마하시지만 속은 늘 뜨겁고 하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마무리를 못 하세요. 다들 어머니에게 발언권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 시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

구하고 5분 말씀하실 것을 10분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좋냐. 중간에 말씀 끊지 말아라’라고 해도 진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길어지면 미치는 것이죠. (웃음) 그래서 중간에 발언을 줄이라고 제지하는 역할을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해야 하는데요. 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전태일기념사업회나 재단 사무총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 기억에는 박계현 총장이 그 악역을 했어요. (웃음) 어머니 발언이 조금 길어지면 끝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야단을 치세요. 그걸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웃음) 아무튼 어머니의 뚫어오르는 열정과 말하고 싶은 진정성, 그런 절박성은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었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끝이 없어요.

**김대현** 끝도 없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어머니에게 운동의 어머니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론 손주들을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기분 좋아지시니까 데려갔다는 점에서 아들의 마음도 분명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수호** 저는 제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생각이 많았어요.

**김대현** 그리고 아까 호칭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머니께서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맞춰서 호칭을 부르시잖아요. 장기표 선생님한테도 장 형 했다가도 선생님이라 하시고, 또 미스 유, 언니야 등처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사장님도 때로는 어떤 역할로 생각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사장님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이사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단어들, 협력해야 한다든지 하던 말씀이 있나요?

**이수호** 제가 운동권에 들어오면서 호칭이 두 가지예요. 교육운동할 때는 제자나 동료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상하게 노동판으로 오고부터는 나이가 많기도 하고 주로 부위원장, 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호칭이 항상 ‘위원장’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위원장’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이소선 어머니도 저를 꼭 ‘위원장’이라고 불렸어요. ‘위원장 잘해라’라는 뜻도 되고, 아닌 말로 속으로는 ‘내 아들이 민주노총 위원장 하는 게 참 좋다, 뿌듯하다’, 전태일도 분신항거를 안 했으면 조직적인 관점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맡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살갑게, 위원장이라 부르는데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죠.

## 2. 이소선 어머니 기념사업

**김대현** 전태일 열사도 바보회 회장도 하셨으니까요. (웃음) 그런 자리를 하셨으니까. 이사장님에게 그 모습이 많이 투영되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화는 끝도 없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넘어가더라도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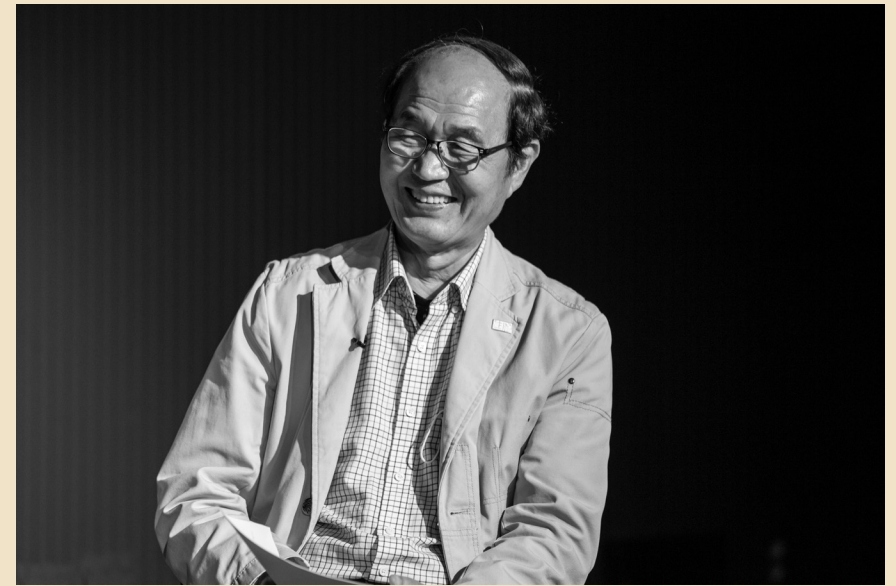
다음 질문입니다. 대체로 열사들은 많은 희생을 하시잖아요. 또 그 정신이 워낙 연결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념사업을 통해서 공동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합니다. 전태일 열사도 그렇지요. 그런데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열사의 유가족들, 지난번 유가협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소선 어머니께서도 열사 못지않은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노동구술기록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이소선 어머니 사후에, 어머니의 행적과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소선 어머니 삶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소선 어머니의 삶은 누가 보더라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는데요. 그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승해야 할 이소선 정신은 무엇인가. 그동안 전태일 정신, 전태일 사상, 풀빵 나눔에 대한 사상은 많이 인구에 회자돼 왔는데요. 이소선 어머니의 정신에 대해서, 전태일의 정신과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소선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차별이었잖아요? 인간 차별,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셨고, 약자 혹은 자식 같은 사람들을 위한 어머니로서 돌봄, 이런 태도에 대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어머니가 이사장님에게 하셨던 말씀, 어머니께서는 ‘노동자가 하나가 되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를 실현할 방안은 무엇인지, 교육이나 연대, 참여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호** 우리나라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운동사적으로 드문 일이잖아요. 자식의 뒤를 이어서,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이른바 자식이 이루려고 했던 일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그것이 노동운동이고, 노동자의 삶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을 중심으로 한 평등이고, 노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이수호

저는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로 이어지는 전태일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중심은 전태일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어머니의 삶이나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가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 성과를 볼 때 거의 병렬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구술기록사업을 하면서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전태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태일에 의해서 포장되거나 또는 가려졌던 어머니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 원래 어머니가 저런 분이셨구나. 오히려 전태일이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전태일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다시 그 어머니가 자식의 영향과 자신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념관을 이 자리에 어렵게 세우고 전태일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심지어 재단 이름을 ‘전태일재단’에서 ‘전태일 이소선 재단’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10년이 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평가도 10년이면 거의 다 이루어지죠. 공과라든지 기타 등등이 걸려질 대로 걸려졌다고 봐요. 이제는 이름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까운 분들에게 제안도 했어요. ‘전태일재단 이름을 전태일 이소선으로 바꿔야 어머니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다. 언제나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으로 남겨 두는 건 그렇다.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이라고 했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상 문제가 있지만 또 내심 확고하게 전태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리하게 할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웃음) 어쨌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머니는 전태일과 같은 선상에서 또 다른 의미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태일이 노동의 본질적 문제 이른바 ‘노동해방, 인간해방’, 인간해방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전태일이 추구한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소선 어머니는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시대에 맞게 풍부하게 펼쳐 나갔다고 봐요.

어머니가 활동하던 시기가 전태일이 활동했던 시기 못지않게 실제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70~80년대가 우리 역사상 보통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곳곳하게 이기고 활동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창신동의 작은 방 하나에서 기거하며 필요할 때면 한울살이라고 유가협 사무실에서,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성하다시피 하면서 기거했죠.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창동에 있는 아파트도 화려하거나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태일 분신항거하고 장례 치를 때부터 자본이나 권력에서 회유하고 협박하며 물량 공세를 퍼붓는 일이 연속적이었어요. 항상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수용하거나 타협이 없었어요. ‘아, 어머니 자체가 그런 삶이구나.’ 그리고 전태일은 노동자로서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활동한 기간을 다 합하면 한 5년 정도예요. 마지막에 ‘바보회’와 ‘삼동회’ 만들고 한 일들이 다 1~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쨌면 예수와 비교 비슷하기도 한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40년이에요. 40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저는,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몇 개월 동안 모든 것을 모아서 분신항거하는 식으로 공적인 삶에 집중적인 활동을 한 것도 대단히 위대하지만, 40년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운동을 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잘 늙는 것. (웃음) 이거야말로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 그런 점에서 이소선 어머니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김대현** 관계가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수호**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예컨대, 아까 운동 측면에서 보면



노동청장실을 접거하러 가는 게 맞는데, 반대로 어머니는 그걸 말리면서 ‘안 된다. 그런 식이 무슨 운동이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관점의 차이가 실제로도 있었어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민주노총 쪽에서 ‘어머니는 왜 자꾸 한국노총과 가까이 지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민주노총이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철수한 적도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른바 우경화되면 같이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노동자가 같 이해야지,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더 높이 두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걸 수용해야 하죠. 그것은 아마 전태일도..., 평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무조건 안 맞는다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든 같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소선 어머니는 참, 대단한 역할을 해 오신 것이죠.

**김대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선후 관계를 따지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후에 그 유지를 잇기 위해서 이소선 어머니가 갑자기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태일 열사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고, 또 어머니가 전태일 열사에게 영향을 받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두 분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술기록을 통해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다면, 언젠가 두 분이 병렬적 위치에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수호** 네. 그게 형식상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꼭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한다, 어디에 위치해야 한다, 재단에 어머니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원하겠어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태일이밖에 없어

요. 오히려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반대하셨겠죠. 제가 재단에 어머니 이름을 넣는 것을 추진해 볼까 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신다면 저는 야단맞겠죠. (웃음)

**김대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머니가 많은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형식은 중요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내용적으로는 어머니를 기리고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말씀대로 ‘노동자들이여 하나가 되라’라는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가 실천하신 것 같아요. 계속 포용하시면서요.

**이수호** 그럼요. 엄마의 마음, 여성의 감수성 등 여러 가지가 정말..., 이번에 구술기록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요. 어머니가 상당히 영민하시다는 거죠. 영민하다는 것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암기하는 지능 지수도 있지만, 눈치 지수다. 눈치가 빨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웃음)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예요.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대답하고, 경어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해서요. (웃음) 그런 부분에 어머니가 탁월하시니까요.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 할 때, 한국노총하고 같이했는데요. 그때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용득 위원장이셨어요. 그분도 성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그분도 이소선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노총 쪽에서는 전태일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웃음) 노동의 본질적 문제를 말하고, 정통의 문제, 비타협적인 투쟁 정신. 또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그러니까 노선을 적당히 타고, 타협하는 것은 전태일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전태일 정신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어머니는



이용득 위원장한테 더 잘 대해 주시고.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경어를 쓰면서 서로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게다가 아들과 제가 나이가 같으니까 어떤 애뜻함도 더 있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머니께서 이용득 위원장하고 훨씬 친한 거예요. (웃음) 스타일이 그러니까요. 가끔 서로 전화도 하면서 안부도 묻고. 그런 걸 굉장히 잘했어요. 꼭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그게 어머니께서 한국노총을 챙기는 방식이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죠. (웃음)

**김대현**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참 영민하시고 관계를 맺는 방법이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데요. (웃음) 어머니의 삶의 태도,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자기가 무언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찾아가세요. 아무리 전태일 어머니이지만 그 당시 여성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항상 무언가를 도모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꼭 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이러니,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합시다’라는 말을 잘 하세요.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보여 주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씩 부탁하면 그분들이 안 도와주겠어요? 찾아와서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영민하시죠. 이처럼 어머니가 일하는 방법은 굉장히 열려 있고 적극적이예요. 부끄러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신 것이죠.

### 3. 노동구술기록사업의 의의

**김대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가 참 힘든 일인데요. 어머니는 삶의 절실함, 아들의 유지를 잊고자 하는 절실함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웃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인데요. 저희가 총 3차에 걸쳐서 노동구술기록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으로, 올해는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기념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한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와 이소선 어머니 10주기를 맞이해서 2년 동안 총 3차, 횡수로는 18회차에 걸쳐 전태일의 친구들, 전태일의 여동생들,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술기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노동구술기록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사업을 왜 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록을 만들어 놓으면 후대에 연구할 연구자들, 이 기록에 영감을 얻어 창작 활동을 할 문화예술인도 있을 것이고,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에 대해 궁금한 일반 독자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께 이 사업의 의의와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할 때 노동구술기록사업을 한다면, 다음은 어떤 주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무사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웃음)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사업을 마치게 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이수호** 네. 기념관이 세워지면서 기념관이 꼭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기념관의 존재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전태일의 집이니까요. 전태일의 집에 오면 전태일을 보여 줘야 하고 전태일과 함께 놀아야 하고 전태일을 느껴야 하고. 전태일을 알아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특히 전시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것들,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작년에 전태일 50주기를 맞으면서 무언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념관 사업을 진행했어요. 전태일에 대해서 50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많아요. 전태일 가족과 친구들은 어느 때만 되면 언론이나 방송에서 찾아와 단편적으로 인터뷰하잖아요. 부분만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언론이나 방송이나 신문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편집하잖아요. 심지어 발췌하기도 하고 유도해서 원하는 답을 얻기도 하죠. (웃음) 그러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도 때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태일에 대한 기록 즉 1차 사료는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이야기를 기억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대로 기록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단편적인 이슈에 맞춰서가 아니라요. 그런 기록은 재단이나 기념관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50주기를 맞으면서 계기도 좋았고요. 재단의 일꾼들과 의논해서 작가님도 모시게 되었는데요. 구술기록사업이 꼭 필요한 작업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이 참여해 주신 분들 특히 작가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해 주셨죠. 흐름을 잡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 중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책을 만드는 일 등이 또 하나의 구술기록사업의 정본, 모범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구술기록사업을 진행했는데 마침 또 올해가 어머니 10주 기예요. 이소선 어머니는 운동을 40년 하셨기 때문에 분신항거 이후 어머니가 직접 이야기한 내용은 많아요. 책으로도 몇 권 나와 있고요. 하지만



## 이수호

어머니가 상당히 영민하시다는 거죠. 영민하다는 것은 눈치가 빠르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암기하는 지능 지수도 있지만, 눈치 지수다. 눈치가 빨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의 기록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번 구술기록이 어머니를 곁에서 본 사람들의 체계화된 정본, 그 기준이 마련된 게 아닌가 합니다. 당장 자료가 이렇게 필요하고 저렇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기록이 10년 지나 20년, 심지어 100년도 갈 거잖아요? 100년 즈음 뒤에 이 자료를 보면서 ‘그때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같이 참여해 준 분들께 고마울 따름이에요. (웃음)

**김대현** 어떻게 생각하면 전태일 열사나 이소선 어머니에 관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언론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번 구술기록을 통해서 체계화된 1차 자료로서, 완결된 역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말석이지만요. (웃음) 참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첫 번째 질문에서 지난 간 내용인데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졌을 때 기분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호** 빈자리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어머니가 계셔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계승되고 어떻게 이어지는가? 시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또한 중요하죠. 아까 전태일은 공적 삶이 4~5년이고, 어머니는 40년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그래서 ‘어머니가 더 살아 계셨더라면’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항상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어머

니의 빈자리 또는 태일의 빈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로 조금씩 채워 갈지, 그분들이 이루려고 했던 지점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최종 도달점은 인간해방의 혁명적 삶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데요. 목표를 향해 가는 것 자체가 해방의 삶이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사는 삶 또한 해방의 삶이라고 봐요. 욕심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 태일 이와 함께 동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상에 1년 정도 있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머니에 관한 추억인데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혼란스러웠을 때였어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인지를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달려와서 다 같이 장례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첫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런 후에 늦은 시각, 이상하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오면 서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제 평생 두 번 통풍을 심하게 앓았는데. 한 번이 그때였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 했어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리가 붓고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례 치르는 동안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영결식 날, 대학로에서 모란공원으로 가는데요. 이른바 솔잎 지팡이, 목발을 짚고 영결식장에만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 몸이 감당 못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벌어진 모든 상황이 싫었고요. 제가 감옥에 있는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교도관들이 따라다니는 조건으로 어머니 장례 치르라고 겨우 잠깐 내보내 줬을 때도 몸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요. 이소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저도 못 일

어나는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인지 무엇인지, 그럴 때 정성스럽게 치러야 하는데, 처음에 역할 맡아서 회의 한 번만 하고 제가 쓰러졌으니깐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구술기록사업,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삶을 공유하고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야 겨우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 구술기록을 했지만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살다 가신 분들, 그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정말 제대로 바라보고 기록해서 우리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전태일과 이소선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한 노력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바뀌고 여유가 생긴다면 다른 분들과 관련된 구술기록을 할 수 있고요.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등 우리는 운동적 삶을 사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니까요. 그렇게 계속 구술기록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현** 어떻게 생각하면 전태일 열사가 모두의 기억에 남은 것도, 어머니께서 끝까지 활동하신 것 그 자체가 전태일기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전태일의 기억이 개인적 기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화적, 공동의 기억으로 남아서 공동체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동구술기록사업들이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어머니의 가치와 더불어서, 또 다른 공동체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수호** 저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웃음)

**김대현** 네. 언젠가 기회가 또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

안 사회를 보시면서 이미 의견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오늘 번외편까지 19회죠. 18회 동안 노동구술기록사업을 진행해 오신 이수호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태일 정신과 이소선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노동구술기록사업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호** 수고하셨습니다.



##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 —2021 전태일노동구술기록 3**

2021년 7월 31일 발행

**장소** 전태일기념관 2층 올림터

**이소선의 기억과 기록**

**펴낸곳**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총괄** 이수호

**진행총괄 및 책임편집** 유현아

**진행** 강재영, 양윤미

**질문 및 정리** 김대현

**촬영** 허철녕

**사진** 이효영

**편집대행** 걷는사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02 318 0904

**팩스** 02 318 0881

**홈페이지** [www.taeil.org](http://www.taeil.org)

**전자우편** [teail@taeil.org](mailto:teail@taeil.org)

**ISBN** 979-11-970538-7-0

**ISBN** 979-11-970538-2-5 [04330]세트

**비매품**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은이와 전태일기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